

# 大學의 教授—學習 改善에 관한 세미나

姜 京 石  
(本協會 先任研究員)

## 1. 세미나의 背景과 意義

지난 11월 26일 大田 유성관광호텔에서 會員大學의 각 학문 분야별 교수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韓國大學教育協會 주최로 ‘大學의 教授—學習 改善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의 주된 목적은 大學教育의 質的 水準을 사실상 결정짓는 教授—學習過程과 學習 條件의 개선을 통하여 大學교육의 生産性 증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잠시 세미나의 意義와 背景을 살펴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大學교육은 짧은 歷史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量的 成長을 거듭하여 왔으나, 그 質的 秀越性은 아직도 大學 사회나 産業社會로부터 만족할 만한 평가를 받지 못함은 물론, 선진 각국과의 國際的인 상대 비교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뒤떨어져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實相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大學교육의 질 향상이 매우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大學교육과 관련된 制度와 政策의 개선, 行·財政的 지원의 확대, 優秀 敎員의 확보, 教授—學習方法의 개발과 教育體制의 개선 및 社會變化에 대한 적응 등 여러 측면의 종합적인 개선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그동안 大學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각 大學에서 여러 형태로 시도되어 왔으나, 主로 人的·物的 變因과 같은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外生的 準據에 치중하여 왔다. 그러나 ‘大學教育의 過程’을 教育 目標를 성취하기 위하여 單位 組織體나 教授가 투입하는 敎科課程, 이를 매개체로 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教授—學習過程, 그 결과로서의 教育 評價의 과정이 相互作用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大學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변인은 바로 이들에 直·間接的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의 內生的 變因에 더 크게 의존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함정에 빠졌던 오류는 大學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앞서의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여러 변인에 대한 심층적인 研究와 改善 意志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한국大學교육협의회 張仁淑 事務總長은 개최사에서 “教授—學習過程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大學 당국과 교수들의 겸허한 自省과 刻畧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協會로서도 大學人의 중지를 모아 다양한 教授—學習 資料의 개발과 보급에 더욱 힘쓸 것”임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의 진행 내용을 보면 오전에 모두

4 개의 主題發表(1 개 주제당 30 분 발표)가 있는 후 오후에 2 시간에 걸쳐 討論 및 質疑·應答이 있었으며, 특히 다양한 영역의 專攻教授들이 각자의 서로 다른 敎授 環境을 반영한 듯 매우 진지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음을 미리 전해 드리고자 한다.

## 2. 主題別 發表 內容

세미나의 각 주제 발표 내용을 간략히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주제는 ‘大學에서의 敎授—學習過程의 論理와 問題’로 서울大 黃禎奎 教授가 발표하였다. 본 주제는 이번 세미나의 문제 제기와 방향을 제시하는 基調講演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黃 教授는 먼저 우리의 대학교육이 理念, 制度, 敎育 內容과 方法 등의 모든 면에 걸쳐 定型없는 迷路를 더듬어 왔으며, 특히 대학교육의 變化의 정도가 社會의 여타 부분에 비해 지극히 느린 속도로 변화했음을 지적하였다. 그 단적인 例示로서 “40 년 전에 대학 교수들이 사용하던 敎授 方法이 ‘후판, 분필, 교재, 목청’의 네 가지 악세사리였는데, 40 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이 네 가지 악세사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은 서글픈 일이다”라고 표현하였다.

이어서 그는 大學敎育의 質을 判定하는 準據로서 첫째로 秀越性의 유지와 발전, 둘째로 社會的 適切性의 실현, 세째로 學生의 自我實現을 들면서 대학교육의 過程이 이들 준거를 실현하는 체제로 변화해야 함을 前提하였다. 그러나 대학의 制度的 변모나 可視的인 物量 投入만으로는 이러한 준거의 실현에 도달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대학에서의 敎育 內容, 敎수 方法, 평가 方法 등의 內在的 準據 要因을 밝히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大學에서의 敎授—學習過程에 대한 理論的 基底로서 敎授 方法의 개념적 접근 방법—巨視的 方法과 微視的 方法—과 學生의 學習量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學業 成就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學習 戰略을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그는 敎授—學習過程을 敎授 環境, 學

生의 特性과 敎授 方法, 傳達體制의 三者에 의한 相互作用으로 보고, 세 변인에 대해 상세한 이론적 설명을 펴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傳達體制에 대한 발표 내용을 요약해 보기로 한다. 傳達體制란 교수가 학생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나 情報를 실어 나르는 體制를 통칭해서 일컫는 말이며, 이는 전달의 메시지를 담은 容器로서의 硬材(hardware)와 이 容器를 통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方法과 節次로서의 軟材(software)로 나누어진다. 硬材의 대표적인 예가 필름, 라디오, 비디오, T.V., 컴퓨터 등의 시청각 수업 매체라면, 軟材의 예는 강의법, 토의법, 실험 수업, 모의 수업 등과 같은 교수 방법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것들을 들 수 있다. 이 두 가지 傳達體制는 상호 배타적이거나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硬材의 媒體의 질은 어떠한 軟材의 정보를 그 속에 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黃 教授는 大學에서 硬材와 軟材의 특성을 도외시한 姑息的인 종래의 반응을 지적하고, 각 교수 방법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므로 한 시간의 수업에서도 敎授 目標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교수 방법을 활용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흔히 ‘講義法’ 하면 좋지 않은 교수법으로 斷罪하고 ‘討議法’, ‘팀 티칭’ 하면 강의법보다 좋은 교수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획일적 판단을 경계하도록 일깨워 주고 있다.

두번째 주제는 ‘敎授—學習體制의 實態와 問題點’으로서 李和國 教授(協議會 研究開發部長)가 발표하였다. 李 教授는 이 발표에서 敎授—學習體制의 요소를 敎授—學習의 計劃, 學習指導, 敎授—學習의 評價로 보고 우리나라 대학의 204 명의 敎授와 880 명의 學生을 대상으로 한 先行 研究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요소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종합하였다.

먼저 敎授—學習의 計劃에 관련된 문제점을 종합하면, 授業計劃書(syllabus)가 충실하게 작성되지 않고 있으며, 약 30%에 가까운 학생들이 수업 계획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이 수업 계획서가 실제 授業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敎授의 강의 준비와 교수법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높으며, 학생들의

수업 준비도가 매우 낮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學習指導의 측면에서는 授業 單位 學生數가 너무 많으며 강의실과 실험실, 교수 기자재, 실험 자료 등의 물리적 환경과 설비가 매우 좋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수업이 說明式 강의 중심이어서 學生의 參與가 적고 소극적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다음으로 教授—學習의 評價에서는 시험 출제의 妥當度와 信賴度에 대해 상당수 학생들의 불만이 있으며, 수업의 計劃과 實施에 관한 평가가 없어 授業 發展을 위한 체계적인 피드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李 教授는 이러한 문제들의 개선을 위해서는 대학 당국의 行·財政的 및 政策的 지원이 증대되어야 하나, 우리의 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손쉽게 개선이 가능한 분야부터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세번째 발표자는 仁川敎大 崔熙善 教授로서 主題名은 ‘大學生의 學習量과 學習 與件 分析’이었다. 이 발표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대학생의 學習量을 外國의 경우와 비교·분석하고, 다음으로 우리 대학생의 學習 與件 현황을 제시하였다.

대학생 學習量 比較를 살펴 보면, 한 講座를 위한 適當 平均 學習時間, 學期當 專攻 관련 도서의 독서량, 강좌당 리포트數, 주당 圖書館 이용 회수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학생의 평균치는 비교 조사된 외국(미국·영국·프랑스·서독·일본·대만)의 수준에 비해 상당히 뒤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물론 國際比較 자체가 안고 있는 標集 對象의 選定 특성과 數的 제한 및 각국 대학의 學習 風土와 與件 등의 차이 등을 감안해야 하겠으나, 崔 教授가 제시한 주요 指標別 비교는 이 분야의 실증적 연구가 거의 없다는 현실에서 보면 개괄적 경향을 파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진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조사된 내용들을 자세히 소개하지는 않겠으나,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대학생들은 대체로 講義 노트와 主教材에 의존하며, 試驗 爲主의 암기식 학습 방법이 주종을 이룬다. 둘째, 우리 대학생들의 授業 態度는 거의 피동적이며(68%), 講義 內容

의 이해 정도가 외국에 비해 뒤지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教授의 강의 내용 비체계화 및 교수와 학생간의 相互作用 부족 등이다. 셋째, 한국의 대학생들은 自律學習時間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專攻 관계 독서량이 외국의 1/3 수준에 머물고 있다. 넷째, 우리의 대학생들은 주당 學習時間, 專攻 讀量, 課題賦與量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때, 이들의 학습량에 있어서 대체로 선진국의 1/2~1/3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學習 與件에 대해 발표자는 教授 1인당 學生數, 圖書館, 獎學金, 施設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學習 與件 측면은 우리의 실정이 外國과 비교하기에는 물론, 현재의 ‘大學 設置基準令’의 기준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대학교육의 발전적 방향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大學 財政의 擴充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적 설명은 이제 진부하기조차 할 정도이나, 대학과 政府 그리고 產業體로부터의 획기적인 支援 對策과 協助 體制가 마련되어야 함을 重誦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 순서의 주제 발표자는 漢陽大 盧宗熙 教授로 본 세미나의 結論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두번째와 세번째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教授—學習體制 개선을 위한 課題’를 발표하였다.

盧 教授는 教授—學習體制의 개선 방안을 敎育課程 운영, 教授—學習의 실제, 學習 與件 개선의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敎育課程 측면에서는 敎養敎科의 질적 수준 향상과 다양한 개설, 專攻履修學點의 上向 調整 문제, 授業과 行事的의 分離 運營 등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教授—學習 측면에서는 수업 계획서의 적극적인 활용과 學生의 參與式 授業 운영, 課題物의 첨삭 지도, 評價 基準의 多元化 및 學點 產出의 嚴正性 등을 주장하였다. 學習 與件 측면에서는 앞서의 崔 教授의 提案에 덧붙여 산업체에서 成績을 증시하는 履傭 慣行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특히 教授의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해 助教의 확보와 활용에 대해 부언하였다. 이 밖에도 新任教授와 外來講師를 위한 學事案內 프로그램의 개발·활용 문제를 제안하고, 授業의

效果性에 대한 평가가 敎授 자신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도 덧붙었다.

### 3. 全體 討論 및 質疑·應答

오전의 주제 발표에 이어 약 2시간여에 달하는 討論 및 質疑·應答 시간에는 발표자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대학 敎育課程 運營 전반에 걸쳐 활발한 의견 교환과 토론이 전개되었다. 세미나의 參席者들은 주로 각 政政領域別 일반 敎수였으나, 敎務行政業務를 주관·집행하는 敎務處·課長職의 보직 敎수와 그 대학의 敎育課程委員會의 멤버로 활동중인 敎수들도 상당수가 있었으며 文敎部 관계자도 참석하였다. 따라서 特定的 전공 분야를 다루어 온 다른 세미나와는 달리 다양한 敎授 集團이 참여한 가운데 현재의 우리나라 대학이 안고 있는 敎授—學習體制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모색되었음은 매우 뜻 깊은 일이었다.

이날 토론 시간에 논의되었던 내용들 중에서 주요 사항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의 卒業 學點은 과거의 160 학점에서 140 학점으로 引下되었으나, 현행 16週의 學期制로는 授業 負擔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外國 大學의 事例와 우리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둘째, 대학 敎養敎育의 改編에 있어서, 특히 法定必須科目 운영에 관한 정부의 방침은 무엇인가?

셋째, 각 대학의 敎育課程 編成時 한 과목을 여러 敎·講師가 강의하게 되는 경우, 학생이 자유롭게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이른바 ‘自律受講制’를 허용해야 하는가?

넷째, 학생의 獎學金 支給·運營 문제와 관련하여 장학생의 선정 기준, 장학금 수혜자 비율 등은 대학마다 難題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제·권장하고 있는 장학금 수혜자 비율은 대폭 인하되거나 대학에 一任되어야 옳지 않은가?

다섯째, 私立大學의 財政難 해소 방안의 하나로 大學 進學 希望者의 욕구 충족을 감안하여, 비록 首都圈 大學일지라도 大學 入學 定員을 늘

려 주는 방안은 고려될 수 없는가?

이밖에도 理·工學系 學科 敎授들의 수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實驗實習時 研究助教(R. A.)의 확보·활용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으며, 敎授들의 責任授業 시간을 훨씬 상회하는 劣惡한 敎수 환경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 4. 세미나의 總評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의 대학이 ‘공부하는 대학, 공부하는 대학생’의 面貌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관건이 되는 敎授—學習體制의 改善 方案을 탐구하려는 목적이 있었으므로 參加者는 물론 세미나의 事前·事後에 社會 各계, 특히 言論에서도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우기 과거에 대학의 學事運營에 대해 대학 밖의 세계로부터 행해져 왔던 각종 規制와 統制가 근간의 大學 自律化의 大原則 아래에서 그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는 시점에 놓이게 됨은 대학의 발전과 改革 意志가 大學人의 손에 달려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요즘 각 대학 나름대로 大學發展研究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敎育課程 개편 및 敎授—學習의 構造를 一新하기 위한 연구 분위기가 충만하여 있음을 세미나의 참석자들로부터도 깊이 감지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학에서 敎授—學習方法 研究에 소홀히 하여 왔다는 지적에서 벗어나, 學生의 學業 成就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폭 넓은 接近과 戰略이 이번 세미나를 기점으로 하여 새롭게 출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끝으로 한 가지 부언한다면, 韓國大學敎育協議會에서는 이번 세미나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綜合報告書를 작성하여 각 대학에 송부함으로써 향후 대학 실정에 적합한 敎授—學習體制 개선 방안 에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을 덧붙인다. 불과 6시간여에 달하는 짧은 시간의 세미나였으나, 대학교육의 秀越性 향상이라는 절대적 命題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긴 航海의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재인식되는 값진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해 본다. \*